\*\*\*

[2주차 공개 프롤로그] - 1주차에서는 뜨지 않습니다.

\*\*\*

[공통 프롤로그] 프롤로그 전체 스킵 선택지 띄우면 좋겠어요. 스킵 버튼으로 눌러도 지루할 거 같아서

//아래 내용은 메모장에서 나오는 연출은 어떨까요?

세계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바치고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하늘이 선사하는 축복은 땅을 풍요롭게 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만끽했고, 식물들은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것처럼 위를 향해 자라났다. 동물들은 들과 숲, 산에 있는 것이 풍부하기에 사람의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앙은 내렸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독니로 다섯 기둥을 물어 뜯었다.

세계는 어둠에 잠겼다. 작물은 시들어 갔으며, 들과 산의 짐승들은 사람의 마을까지 내려왔고, 비탄이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위대한 마법사는 용을 봉인하고 기둥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하늘은 더이상 무너져내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법사는 자신의 다섯 제자에게, 다시금 세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라고 일렀고, 제자들은 자신의 피에 ‘희망’이라는 마법을 심는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설에서는 제자는 다섯이라고 하지만, 실존했는지 의문스러운 인물 한 명을 더 포함하여 6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으며, 예이츠 가문은 나를 여섯번째 제자의 후손으로 지목했다.

>배경을 지우고 장소는 주인공의 방으로

>8월 31일 월요일

>마론은 선량하고 호의적인 표정을 지을 것.

마론 : 기숙사실을 치우다가 그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프리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마론\_걱정되는 표정

마론 : 앞으로가 문제네요. 우선…, 사정 때문에 1학기를 휴학계를 내지 않고 모두 쉬어버렸으니, 1학기의 성적은 학년 최하예요.

마론 : 1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었으니, 2학기를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까지 되지만….

>마론\_다시 웃음

마론 : 그래도 원래 성적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으니까요. 아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과 상담하고 왔는데, 여태까지의 성적이 좋았으니, 2학기 성적만 잘 내준다면 졸업도 어렵지 않을 거랬어요.

마론 :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숙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금방 싼 방을 구할 수 있어서….

>마론\_가볍게 놀람

마론 : 아뇨, 제 덕분이라니요.

>마론\_통

마론 : 프리아의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마론\_걱

마론 :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진 않겠지만, 졸업 준비를 하려면 빠듯하겠죠?

>마론\_통상

마론 : 졸업준비를 하겠다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프리아만 마음이 있다면 점장님께 말해둘게요.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예요.

>마론\_웃음

마론 : 네. 그러면, 점장님께는 프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해둘게요. 제 친구라고 하면 아마 마음 편히 받아주실 거예요.

마론 : 다른 문제는 없으려나?

# 여기로 돌아오기

마론 : 프리아, 더 궁금한 게 있나요?

[선택지1]

1. “내가 잃어버린 6개월 전의 기억에 관해 아는 것이 있을까?”

2. “예이츠 가문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

3. “이번 졸업시험의 과제는 뭔지 알고 있어?”

4. “이렇게 도움 받아서 미안한 걸….”

5. “아니, 없어. 고마워, 마론.”

1. “내가 잃어버린 6개월 전의 기억에 관해 아는 것이 있을까?”

>마론\_가벼운 걱정

마론 : 글쎄요. 사실 전 프리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6개월 전의 기억 중 아주 일부가 사라진 거죠?

마론 : 2학년까지 배운 과목들도 기억하고 있고, 저나 교수님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론\_안도하는표정/통상

마론 :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마론\_가벼운 걱정

마론 : 그 날, 마주쳤을 때 제게는 숲으로 간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마론 : 혹시 기둥을 보러간 걸까요? 예이츠 가문이 닦달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프리아도 슬슬 기둥과 결착을 짓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론 : 예이츠 가문은 프리아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으니까요.

마론 : 다치고 기억을 잃은 채로 숲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한 번에 지원을 끊어버리는건 정말…. 얄밉지만요.

#돌아감

2. “예이츠 가문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마론\_가볍게 고민하는 표정

마론 : 글쎄요…. 어떻게 되었다고 확실히 아는 건 없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마법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론\_무표정?굳은 표정?

마론 : 예이츠 가문은 다섯 마법사를 찾아서 고용할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니까요. 6번째를 찾아서 아카데미에 보낼 정도로 지원한 다음, 자신들의 이름을 같이 알리고 싶은 걸 거예요.

>마론\_웃음

마론 : 여간, 지금은 프리아와 크게 관계있는 가문도 아니게 되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론\_통상

마론 :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건 졸업 시험이죠.

마론 : 내년 2월 14일까지 얼마나 남았더라….

#돌아감

3. “이번 졸업시험의 과제는 뭔지 알고 있어?”

>마론\_굳은 표정

마론 : 그게….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부칠 모양이더라고요. 필기와 실기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조차도 말씀해주시지 않으니.

>마론\_고민

마론 : 작년이요? 작년엔…, 실기의 비중이 상당했었죠. 음, 아마 졸업한 선배 중에서 이론 공부는 잘 하지도 않았는데 실기 점수가 좋은 탓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버린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론\_통상

마론 : 그거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아, 이건 기억나죠?

>마론\_고민

마론 : 그 선배 이름이….

>마론\_웃음

마론 : 네, 맞아요. 마난이었지요. 실기 성적만으로 치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만하다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마론\_통상

마론 : 결국 저도 졸업시험에 관해선 아는 게 없지만요. 그래도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프리아에게 알려줄게요.

#돌아감

4. “이렇게 도움 받아서 미안한 걸….”

>마론\_웃음

마론 : 별말씀을요. 제가 어려울 때는 프리아의 도움을 받았고, 친구 사이인걸요.

마론 : 후훗, 반 년간 병상에 있었으니까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웠죠?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는 다시 아카데미에서 보게 되겠네요.

#돌아감

5. “아니, 없어. 고마워, 마론.”

(통상)

마론 : 그렇군요. 이제 짐 정리도 끝났고, 프리아도 푹 쉬고 싶죠?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웃으면서)

마론 : 저 []요일에는 [ ]수업을 들으니까요. 아, 아르바이트라면 제가 [ ]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 때 와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마론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프리아의 힘이 되고 싶으니까요.

>마론퇴장

>파프닐 등장

>파프닐\_통상

파프닐 : 네 친구도 참, 걱정이 많군. 덕분에 큰 곤란 없이 잘 곳도 생겨서 다행이구나.

파프닐 : 병원비는 비쌌지. 덕분에 네가 마련한 돈, 저금한 돈은 전부 날려 먹었으니….

>파프닐\_웃음

파프닐 : 앞으로 정말 다사다난하겠구나!

>파프닐\_통상

파프닐 : 음~. 즐거워서 놀리는 건 아니다. 기분 상하지는 말거라.

파프닐 : 나도 네 친구만큼은 아니다만 네 편의에 힘쓰도록 하지.

>파프닐\_웃음

파프닐 : 이 몸은 네게만 보이니 말이다.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라고는 너를 돕는 일밖에는 없지. 그 점 기쁘게 생각한다. 걱정 말거라. 하하하!

>파프닐\_통상

파프닐 : 어디 이사한 방이라도 구경하겠느냐?

//UI설명

파프닐 : 음, 여기까지구나. 좁은 방이지만, 졸업만 하면 이 마을을 떠나든, 이 방을 떠나든 네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하게 될 테니 말이다.

>파프닐\_눈감음

파프닐 : 그럼 응원하지. …헌데, 네가 먹을 저녁부터 당장 방에는 없어 보이는구나.

>파프닐\_통상

파프닐 : 사러 나가는 게 옳겠구나. 자, 정해졌으면 빨리 움직이도록 하자꾸나. 병실에 반 년 누워 있었다고 아직도 몸이 흐느적거리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장소 변경 ; 시장가

>파프닐\_놀람

파프닐 : 사람이 많구나. 특히 네 또래의 사람이. 2학기가 곧 시작인 탓인가?

>파프닐\_웃음

파프닐 :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나오기를 잘 했구나. 2학기 준비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아, 뭐! 수중에 돈은 많이 없을 테지만 말이다!

[선택지2]

1. “그런 말은 안 하느니 못한 것 같은데….”

2. 떠들게 놔두고 걷는다.

1. “그런 말은 안 하느니 못한 것 같은데….”

>파프닐\_웃음

파프닐 : 뭐, 오래 잠들어 있었으니 말이지, 떠들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게다.

#분기 종료

2. 무시하고 걷는다.

(통상)

파프닐 : 응? 어딜 가느냐?

#분기 종료

>파프닐 사라짐. 화면 가볍게 흔들리기

??? : 우와앗! 어딜 보고 걷는 거야!

//파프닐 놀란 표정으로 나타나기. 중앙에서 나타나서 왼쪽으로 스탠딩 이동

파프닐 : 쌍방 과실이니까 말이다. 절대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프리아.

//로페 울상으로 등장

??? : 아프잖아!

>파프닐\_한숨

파프닐 : 시끄러운 꼬마한테 딱 걸렸구나. 운이 없군.

??? : 다친데 없느냐고?

>로페\_고민

??? : …좋은 사람이구나?

[선택지3]

1.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2. 물건을 주워 준다.

1.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로페\_의아한 표정

??? :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로페\_놀람

??? : 와앗. 저기, 고마워…. 이렇게 물건까지 주워줘서.

>로페\_통상

??? : 남은 건 내가 주울 테니까.

#분기 종료

2. 물건을 주워 준다.

>로페\_놀람

??? : 어? 내 물건…. 와앗, 주워줘서 고마워.

>로페\_의아한 표정

??? :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고? 으응, 아니. 없어. 다친 곳도 없어.

>로페\_통상

??? : 고마워, 응. 물건 주워줘서.

#분기 종료

>로페\_웃음

??? : 나는 ‘로페’라고 해.

로페 : 있지, 나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알고 있어. 아까 소리 지른 거 미안하니까, 사과하게 해줘.

>화면 한 번 페이드 아웃. 레스토랑이나 카페테라스... 이 있다면 거기 배경을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파프닐 사라지고 로페 중앙으로

>로페\_통상

로페 : 응? 내가 아카데미 학생인건 어떻게 알았어?

로페 : 아. 아까 떨어트린 교재를 보고 알았구나. 그렇다는 건, 너도 아카데미 학생이야?

>로페\_놀람

로페 : 3학년!

>로페\_통상

로페 : 그랬구나. 아카데미에서 3학년까지 있기도 어렵다고 들었어. 굉장하네.

>로페\_웃음

로페 : 아니! 나는 교환학생. 수도에서 왔어. 우수한 성적을 가졌으니까 아카데미 대표로 온거야.

>로페\_걱정

로페 :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바다가 거센 탓에 도착하는 게 늦어버려서. 20일이나 바다에 배가 뜰 수 없었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이틀 전에 도착했거든.

로페 : 그래서…, 좀 불안해.

>로페\_통상

로페 : 응? 부교재 고르는 거 도와주겠다고?

>로페\_웃음

로페 : 고마워! 실은 나,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대부분의 기구들을 새로 사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로페-오른쪽으로 이동, 파프닐 왼쪽에서 등장

파프닐 : 네가 그런 성격이라는 건 알겠지만, 네 시간도 많지는 않을 텐데 괜찮겠어?

파프닐 : 아까는 흐느적거리지 않을 거라 말했지만, 넌 아직 병상에서 일어났을 뿐인 환자인 것도,

>로페\_의문

로페 : 응?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로페\_웃음

로페 : 와! 케이크 도착! 어제도 왔는데 맛있었거든.

>페이드 아웃. (닦아내기로 밝은 화면에서 노을진 풍경으로?)

>페이드 인

>로페\_웃음

로페 : 여기까지 어울려줘서 고마워, 선배!

로페 : 아카데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 교환 조건 중 하나라서, []요일에는 []수업을 듣게 될거야.

>로페 퇴장

>파프닐\_통상

파프닐 : 결국 저 꼬맹이 물건만 본다고 네 물건은 제대로 보지도 못 했구나.

>파프닐\_놀람

파프닐 : 응? 뭐라도 본건가? 뭘 그리 급하게 서두르지?

>화면 가로로 닦아내며 파프닐 사라지기

>키르케\_괴로움을 참아내는 듯한 표정...?

>다시 한 번 화면 닦고 파프닐 등장

>파프닐\_놀란채로 화내기는 뭘까... 나도 모르겠다 미래의 내가 스탠딩셋 보고 정해줄 것이다

파프닐 : 프리아! 병원에서 막 나온 애가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

>화면 한 번 더 닦아내기. (//배경이 좀 있다면 몇 번 다른 곳을 비추다가, 최종적으로 )마난네 잡화상 배경

>마난\_통상

??? : 괜찮아요? 숨이 차 보이는데.

??? : (키르케의 설명... ~~를 입은, 수준으로) 여자애? 으음, 아니. 이쪽으로 오는 건 못 봤는데….

>마난\_통상표정에서 눈썹만 좀 내리며

??? : 아, 중요한 일이었나요? 소매치기?

>마난\_통상

??? : 그런 건 아니라고요? 다급하게 달리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 붙잡아 버렸나?

??? : 물이라도 마시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

>마난\_웃음

??? : 그리고 이걸 줄게요. 짠. 떨어트린 물건이에요. 수첩이죠? 내용은 안 봤어요.

>마난\_통상

??? : 또 떨어트린 물건은 없나요?

??? : 다행이네요. 잊어버린 건?

??? : 아하하,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큰일이네. 저쪽 방향으로 왔으니까, 그대로 돌아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 : 인사는 괜찮아요.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난\_웃음

??? : 조심히 살펴서 가도록 해요.

>화면 닦아내서 카페의 장소로

[선택지4]

파프닐….

어디로 갔지….

[분기 종료]

>리프\_놀람

??? : 혹시, 프리아인가?

??? : …몸은, 괜찮아진건가?

>리프\_무표정

??? : 너를 아느냐고?

??? : 그야, 네가 자주 단상에 서거나 했으니까….

>리프\_당황

??? : 일방적으로 아는… 거지만. 나는 네가 없어서 곤란했으니까.

>리프\_화남...?화난달까...뭐랄까...

??? : 아무튼, 이제 아카데미에 나올 수 있어?

>리프\_안도

??? : 네가 없어서….

>리프\_화남...?

??? : 네가 없어서, 학년수석은 내가 차지했으까 말이야.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줄곧 수석 자리는 네 몫이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실력으로 이겨주겠다고 생각했더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신세라고 하잖아.

[선택지5]

앗, 저기 있는건….

파프닐!

??? : 물론. 프리아, 네가 없더라도 수석은 내 거지만.

??? : ….

>리프\_부끄러워하자

??? : …용건은 그걸로 끝이냐고?

??? : ……응.

>리프\_통상

??? : 아, 그렇지 내 이름은 리프

>리프\_놀람

??? : 우왓, 잠깐만!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데?

>페이드 아웃 (닦아내기)

>페이드 인 (닦아내기)

>파프닐\_통상

파프닐 : 프리아, 어디 있는 거냐! 뛰다가 넘어져서 쓰러진 건 아니고?!

[선택지6]

“파프닐!”

“그럴 리가 없잖아.”

파프닐 : 오, 프리아. 나는 그만 네가 어디에 쓰러져 있을까 걱정했다.

>파프닐\_놀람

파프닐 : 응? 미아가 되면 그 자리에 있어달라고?

>파프닐\_통상

파프닐 : 흠. 주변을 보지 않고 달려 나간 쪽이 미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만.

파프닐 : 뭐 좋지. 네가 무사했으면 됐다.

>파프닐\_눈감음

파프닐 : 너를 찾는 동안 저쪽에 열려 있는 잡화상을 보았다만, 가깝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물건은 거기서 챙기는 게 어떻겠느냐?

>파프닐\_통상

파프닐 : 그래. 그럼 가도록 하자꾸나.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마난의 잡화상

\*\*\*\*여기서부터 다시 볼 것 더 자연스러운쪽으로

>파프닐\_놀람

파프닐 : 응? 여기 왔었다고?

>파프닐\_통상

파프닐 : 길이라도 엇갈린 모양이구나.

>파프닐 왼쪽으로

??? : 어서오세요.

>마난 오른쪽에서

>마난\_웃음

??? : 또 만났네요.

??? : 인사는 괜찮다니까요. 무슨 용무로 다시 왔나요?

>마난\_통상

??? : 아하. 나도 아카데미 졸업생이니까, 우연찮게 도움이 되겠네요. 도와줄게요.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서두르는게 좋겠죠?

??? : 음. 친절하다기 보다는 호객행위인데, 지금건...

>마난\_웃음

??? : 아까 메모장을 주워준 것도 고맙다구요? 보통은 그러지 않으려나...?

??? : 그렇지. 후배 분의 이름을 들어도 될까요?

[선택지7]

1. “저는 프리아라고 해요.”
2. “말은 편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마난\_웃음

??? : 음. 그럼 공평하게 프리아도 편하게 부르도록해. 마난이라고 해.

>파프닐\_놀람

파프닐 :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파프닐 : 아, 네 친구가 지난 해 수석 졸업자라고 한 녀석 이름이 마난이었지.

\*물건 사고 방으로 돌아감

\*파프닐이 해주는 격려를 듣고 눈 감기

\*잃은 기억에 대한 꿈 꾸기

ㄴ내용은, 거대한 그림자(용)이 포효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자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 키르케가 있음 시야가 새하얗게 변하고, 눈을 뜸

\*파프닐이 깨움 괜찮느냐고 물음

\*안정된 것 같으니 이제 아카데미에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함

\*아카데미에서 마론과 마주침

\*마론에게 질문을 함

-키르케에 관해: 잘 모르겠다. 키르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항상 프리아랑 둘이서만 다녔다. 그 외의 사람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편이다.

-리프에 관해: 리프...? 리프트라실 군을 말하는건가요? 성적 좋은 모범생으로 알고 있다. 리프가 프리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는건 다들 알고 있을텐데~ 지난 학기에 일 등했어 정도로.

\*페이드아웃 닦아내기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개학식의 지루함에 대해 파프닐이 불만을 토함

\*멀리서 키르케를 보고 가까이 가려는 순간 리프에게 붙잡힘

단상에서 늘 네가 하던 것을 내가 했다느니 뭐니, 그러니까 한 학기 쉬었다고 봐주지 않을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안 로페가 가까이 옴

\*선배~ 이 사람 누구?

\*난 교환학생이고, 교복같은 불편한거 안 입어도 괜찮거든? 메롱

\*선배, 그보다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 점심 먹은 뒤에 슬쩍 빠져나가서 파르페도 먹으러 가자

\*이 녀석은 내 라이벌이고, 빠진 반 년분을 채우기 바빠서 오늘도 도서관에 갈 예정이라고 멋대로 정하고 티격거리는 동안 마론이 등장하기

\*프리아 씨, 같이 식사하러 가요. 개학식 후반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니까 책을 빌린 다음엔 케이크라도 먹으러 가죠. 하고 둘이 가버리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가에서 잡화점을 보고 있는 마난을 봄.

\*잘 다녀왔느냐고 말해주기

\*수다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한테서 프리아의 사정을 들었거든. 내키지 않을텐데 다른데서 들어버려서 미안해. 내가 썼던 참고서가 있거든. 괜찮다면 가져갈래? 내가 미안해서 그래. 그 애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해뒀으니까.

\*선택지 띄우기 거절하려하면 파프닐이 먼저 눈치채고 받으라고 함.

\*참고서를 잔뜩 받아서 집에 돌아옴

\*파프닐이 지친건 알겠지만, 잠을 잠시 미루고 남은 이번 주동안의 스케줄을 짜라고 말하면서 스케줄짜는 방법 설명해주고 end

그럼 꿈도 꾸지 말고 푹 쉬어라, 프리아. 내일부터도 바쁠테니.

\*프롤로그 종료